

제9회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 주제발표 공모

- 구연발표, 포스터발표, 복약지도 경연, 웹툰·UCC -

대한약사회에서는 회원들의 단합을 도모하고 약학연구 활동을 통한 자기계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제9회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를 개최하며, 학술발표문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행사 개요

- 가. 행사명 : 제9회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
- 나. 일 시 : 2023. 10. 15(일) 09:00
- 다. 장 소 : 서울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
- 라. 슬로건 : 맞춤형 건강시대! 약사와 함께!

2. 주제발표 공모

발표형식	주제
구연 및 포스터	약국관련 제도·정책, 학술정보 및 환자상담 등
	의료기관 관련 제도·정책, 학술정보 및 환자상담 등
	계약·유통관련 제도·정책, 학술정보 등
	의약·보건·교육 분야 연구, 사례보고 등
복약지도 경연	환자 대면 복약지도를 통한 약료 구현 사례
웹툰·UCC	약사직능의 확대(공직약사 스토리, 소개, 인터뷰 등) 스포츠약사, 방문약료와 다제약물관리, 디지털헬스케어, 비대면 투약, 플랫폼에 의한 약 배달

3. 제출기한 및 제출처

- 가. 제출기한 : 2023. 8. 21(월)
- 나. 제출처 : 제9회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 준비위원회(논문접수 담당자 이메일 : kpakjy@naver.com)

4. 심사절차 및 발표

- 구연은 학술주제발표 심사위원단에서 1차 초록 심사를 통해 예비수상자를 선정하고, 2차 구연심사로 순위(대상, 최우수상, 우수상)를 가림(2차 구연심사 일정은 예비수상자를 대상으로 추후 통보)
- 포스터, 웹툰/UCC는 학술주제발표 심사위원단에서 사전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함
- 복약지도 경연은 학술주제발표 심사위원단에서 제출된 대본과 동영상으로 예비수상자를 선정하고, 학술제 당일 현장 시연(상황극) 진행 후 2차 평가로 순위(대상, 최우수상, 우수상)를 가림
- 수상작 시상
 - 구연, 포스터, 웹툰/UCC 수상작은 학술제 당일 기념식에서 시상식(수상작 발표시간 별도 있음)
 - 복약지도 경연은 1차 예선 수상작을 대상으로 학술제 당일 현장에서 상황극(구두발표)을 진행하여 최종 심사 후 수상 순위를 가림

※ 투표에 참가한 학술발표장 내 약사회원을 위한 경품 추첨이 있음

- 가. 구연 발표 : 초록을 제출함. 심사위원단에서 제출된 초록(1000-2000자)에 대한 1차 심사 및 2차 사전 구연발표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함. 선정된 수상작은 학술제 당일 구연 발표를 실시(수상작 등 발표자료는 초록집 또는 학술제 교재에 게재)
- 나. 포스터 발표 : 초록을 제출함. 심사위원단에서 제출된 초록(1000-2000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포스터 자료에 대한 최종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함. 학술제 당일 포스터 전시 실시(초록은 초록집 또는 학술제 교재에 게재)
- 다. 복약지도 경연 : 대본과 동영상 파일을 제출함. 심사위원단에서 실제 복약지도 상황의 대본과 동영상(하이라이트 부분 3분 이내 분량)으로 예비 수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수상작은 학술제 당일 경연 발표를 하여 최종심사를 통해 순위를 가림
- 라. 웹툰·UCC : 제작한 영상 또는 웹툰 파일을 제출함. 심사위원단에서 제출된 제작 영상 또는 웹툰에 대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수상작은 학술제 당일 소개 실시

(추후 홍보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타 학술행사에 제출 이력이 있는 발표작은 접수 불가

5. 응모자격 및 신청방법

가. 응모자격 : 2023년도 회원신고를 필한 회원(단, 구연 및 포스터, 웹툰·UCC는 (현)약학 대학생 및 약학 대학원생 지원 가능)

나. 신청서 서식 및 작성방법 : 대한약사회 홈페이지(<http://www.kpanet.or.kr>)에서 다운 받아 활용

6. 발표 및 시상

가. 발표 : 2023. 10. 15(일) / 학술제(10.15) 개최 당일 최종 심사 후 시상

나. 시상

<p>① 구연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 1명 상금 200만원 - 최우수상 : 1명 상금 100만원 - 우 수 상 : 2명 상금 50만원 ☞ 약대생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우수상 : 1명 상금 100만원 - 우 수 상 : 1명 상금 50만원 	<p>② 포스터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 1명 상금 100만원 - 최우수상 : 1명 상금 50만원 - 우 수 상 : 1명 상금 30만원 ☞ 약대생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우수상 : 1명 상금 50만원 - 우 수 상 : 1명 상금 30만원
<p>③ 복약상담 경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 1명 상금 100만원 - 최우수상 : 2명 상금 80만원 - 우 수 상 : 2명 상금 50만원 	<p>④ 웹툰·UCC</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약대생 공통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 1명 상금 100만원 - 최우수상 : 1명 상금 50만원 - 우 수 상 : 2명 상금 30만원

※ 발표자료 접수 및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자가 없을 수 있으며, 수상자는 개별 통보

※ 모든 학술발표 지원자에게 소정의 참가 선물을 지급함

▷ 기타 문의 : 대한약사회 정책학술팀(02-3415-7608)

제9회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 준비위원장

제9회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 주제발표 신청서

- 구연발표·포스터발표·복약지도 경연 공모 초록 접수 양식 -

◆ 접수 정보

대상 구분	약 사 <input type="checkbox"/>		약대생 <input type="checkbox"/>	
발표 형식	① 구연발표 () ② 포스터발표 () ③ 복약지도 경연 () ※ 복약지도 경연은 약사만 참여 가능			
발표자	이름		소속	
	근무지 전화		휴대전화	
	E-mail			
내용	제목	국문		
		영문		
	저자 및 소속			
초록				
비대면 진료 어플의 이용현황 분석 및 보건 의료에 끼치는 영향				
박현진(소속지부_경기지부 화성시분회, 근무처_한미약품 연구센터)				
<p>의료법 및 약사법 상 법적인 미비점에도 불구하고 특수(감염병재난)상황이란 명분으로 보건복지부의 한시적 고시 공고에 의해 비대면 진료가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다. 특히, 비대면 진료 및 관련 사설 어플의 가입자 수가 최근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용한 사용자에 대한 자료는 업체들의 홍보성 자료 이외에는 없으며, 이용 현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줄임)</p>				

【참고사항】

1. 구연발표 신청자 중 1차 초록심사 후 예비 수상작은 개별 통지하여, 2차 구연발표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별도의 구연발표 자료(ppt)를 준비해야 합니다.
2. 포스터 발표 신청자는 초록을 논문집 또는 학술제 교재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별도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학술제 당일(2023. 10. 15.) 포스터 부착을 위해 반드시 포스터 제작용 파일(원본파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포스터 부착용으로 출력이 불가할 경우 포스터 전시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복약지도 경연 신청자는 위 초록 부분을 이용하여 대본을 작성하고, 동영상(하이라이트 부분 3분 이내 분량)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한 대본과 동영상으로 예비수상작을 선정하고, 학술제 당일 현장 시연(상황극) 진행 후 2차 심사로 순위(대상, 최우수상, 우수상)를 가림
※ 학술제 당일 현장 심사에는 상대(환자)역 대상자와 함께 참석 요망
4. 구연발표 원고, 초록은 학술대회 담당자 e-mail (kpakjy@naver.com)로만 접수 받습니다.
5. 초록 및 포스터는 작성방법 안내를 참고하시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정책학술팀 02-3415-7608

제9회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 준비위원장 귀중

□ 학술발표 초록 작성 안내

1. 구연 또는 포스터 발표 초록은 “[학술발표 구분(구연 또는 포스터 등 발표형식에 해당되는 부문명)_제목_발표자 이름]”을 파일 제목으로 하여 대한약사회 학술제 담당자 e-mail(kpakjy@naver.com)로 접수해 주십시오.
2. 첨부 파일의 초록 접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형식에 맞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래 방법으로 초록 또는 대본 요약본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양식 이용하여 기재)
 - ① 발표문 작성은 HWP 또는 MS-Word로 작성한다.
 - ② A4 용지를 사용하되 여백은 다음과 같다(상하 : 각 3 cm, 좌우 : 각 2.5 cm)
 - ③ 발표문 제목은 12 point로, 저자의 이름/소속지부, 근무처는 11 point로 하며, 제목은 가능한 간단 명료하게 쓰고 초록 내용은 가능한 1,000-2,000자 이내(띄어쓰기 포함)로 작성한다.
 - ④ 초록 본문의 글자크기는 10 point, 글자체는 휴먼명조체, 장평 100%, 자간 0%, 줄간격은 160%으로 한다.
 - ⑤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소속과 성명을 작성하면서 소속이 다른 경우는 다음과 같이 각각을 표기한다. 발표자에 해당하는 저자는 첫 저자(맨 앞에 기입)로 작성한다 (소속 구분의 성명은 오른쪽 위에 숫자 표시, 소속은 왼쪽에 숫자 표시) 소속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 저자의 소속기관에는 표시하지 않고, 타 기관에만 표시한다.
예 1) 김한국, 박대한¹, 이대약¹, 최병약²
예 2) 한국대학교 약학대학, ¹강남구약사회, ²서울대한병원
5. 앞의 설명 이외의 편집 작업(원고 페이지 표시 포함)은 하지 않는다.
※ 국내외 타 학술지 등에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인 원고는 투고할 수 없으며, 게재발표자료의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자가 진다.
※ 기타 문의 사항은 학술제 담당자(☎ 02-3415-760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예시)

새로운 사실이나 현황의 발견에 따른 신속한 보고를 목적으로 하되, 요약(Summary), 배경(Background) 또는 서론(Introduction), 증례(Case Report), 고찰(Discussion), 참고문헌(Reference)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구성 예)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배경 (3~4 문장) - 이 사건의 보고된 이유와 이 사례 보고(case report)가 새로운 이유 또는 임상적인 관련성에 대해 설명(2) 사례 발표 (6~10 문장) - 환자와 관련된 약학적 내용, 처방 또는 조제 내용 및 부작용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결과를 서술합니다.(3) 고찰/결론 (3~4문장) - 해당 사례에서 임상적 영향 및/또는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합니다. 해당 사례가 어떻게 더 광범위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고, 유의해야 할 사항이나 향후 연구되어야 할 흥미로운 주제를 제시합니다. |
|--|

(초록 작성 예시) 📄 “제8회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 구연부문 수상작(대상)”

초록

비대면 진료 어플의 이용현황 분석 및 보건 의료에 끼치는 영향

박현진(소속지부_경기지부 화성시분회, 근무처_한미약품 연구센터)

의료법 및 약사법 상 법적인 미비점에도 불구하고 특수(감염병재난)상황이란 명분으로 보건복지부의 한시적 고시 공고에 의해 비대면 진료가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다. 특히, 비대면 진료 및 관련 시설 어플의 가입자 수가 최근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용한 사용자에게 대한 자료는 업체들의 홍보성 자료 이외에는 없으며, 이용 현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비대면 진료를 증대하는 관련 업계에서는 국민 특히, 의료 취약대상의 접근성 강화를 비대면 진료의 주요한 명분으로 삼고 있으나, 그에 대한 근거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실제 어플에 의한 비대면 진료가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강화에 도움 및 국민의 보건 의료에 기여하는지에 대해 확인하며, 국가의 보건의료체계에서 비대면 어플들의 등장으로 취지와 목적에 벗어나, 역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약배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사항에 대해서 실제 이용자의 경험을 통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2022년 5월 24일부터 2022년 6월 8일까지 총 15일간 조서 설문조사 전문업체 서베이빌리를 통하여 비대면 어플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총 101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조사과정에 허위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업체의 설문조사 기법을 추가하여 신뢰성을 향상 시켰다.

비대면 어플 이용자를 연령별로 분석하였을 때, 의료 접근성과 IT 기기 사용이 적은 60대 이상 이용자는 2.3%로 매우 적으며, 대부분 실제 병원을 방문하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거나, IT 기기 사용에 능숙한 20~40대 (90% 이상)가 주로 활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60대 이상의 인터넷 및 온라인 banking 이용률이 3.65%, 본 연구에서 비대면 진료 어플을 이용한 60대 이상 이용자의 비율과 유사하였다.

비대면 어플 이용자의 복약지도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서 전체 이용자 중 40% 내외에서 유선 복약지도를 다시 받았지만, 절반이 넘는 경우 단순 서면 복약지도 또는 전혀 안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중에서도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은 60대 이상의 경우에 3분의 2에 가까운 이용자가 복약지도를 받지 못하였거나 단순 서면을 통한 안내를 제공 받고 있으며, 이는 전체 이용자 대비 더 높은 비율이었다. 그로 인하여 60대 이상 이용자의 불만사항 중에 부실한 복약지도 (30%) 및 연락불가 (10%)가 큰 비율로 차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비대면 어플을 이용하면서 무분별하고 무성의한 약배달 활성화가 국민, 특히 노령층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를 나타내었다.

(중략)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의료접근성 및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강화 측면에서 보면, 현재의 비대면 진료 어플은 제대로 반영,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느리고, 부정확하며, 안전성이 떨어지는 배송 및 약의 전달 형태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부실한 복약지도, 검증, 신원확인이 제대로 되지않은 약사 및 약국에 의한 의약품의 조제 문제 역시 가지고 있음이 증명된다.

앞에서 제시한 문제점들은 지역보건의료체계의 우수한 의료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의료접근성 및 보건 의료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저해. 지역보건시스템 붕괴시킬 우려를 내재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간 의료 불평등을 더욱더 심화시키고, 군단위이하 병의원, 약국등의 생태에 지장 초래하여 지역보건의료체계 붕괴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탈법적이고 불안정한 형태의 불법 사업에 대한 조속한 중단이 되지 않으면 보건 의료 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 포스터 작성 안내

1. 포스터의 크기는 가로 90cm, 세로 120cm로 한다.
(여백은 상·하 각 3cm, 좌·우 각 2.5cm)
2. 제목과 발표자/소속지부, 근무처는 각각 1단으로 하되, 글씨크기와 서체는 자유롭게 설정한다(성명 및 소속 표시방법은 초록 작성 안내 참조).
3. 작성매수는 보드 준비 등을 고려하여 1매를 원칙으로 하되, 2매 이하로 제한한다.
4. 포스터 발표를 위한 당일 현장에는 포스터 보드가 준비됩니다. 포스터 보드에 부착할 포스터 제작을 위해 포스터 제작용 파일(원본파일)은 학술제 1개월 전[9.11(월)]까지 초록 제출처(이메일 kpakjy@naver.com)로 송부 바랍니다.
※ 포스터 부착용으로 출력이 불가할 경우, 포스터 전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포스터 초록 작성 예시)

☞ “제8회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 포스터 부문 수상작(대상)”

초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 사용은 실현되고 있는가? 마약류 진통제 처방자와 조제자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김진이(소속_서울 강남지부, 한양대학교 박사과정 재학)

한국은 2000년대 이후 마약류 진통제 사용과 오남용이 증가하였다. 2020년 마약사범은 2,198명으로 전년 대비 21.8% 증가하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0대 청소년들이 펜타닐 패치를 불법으로 투약하여 수십 명이 검거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병 의원과 약국에서 합법으로 마약류 진통제를 구입 후 불법으로 투약하였다. 한국은 2018년 5월 18일부터 전국단위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arcotic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NIMS)을 운영하고 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 취급자가 모든 마약류 취급 내역을 전산으로 보고하도록 개발된 시스템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출 사례를 예방하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였다. 한국은 마약류 관련 연구는 마약류 진통제 사용 행태와 마약 사용자 경험에 관한 연구 등이 있으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제도의 사용자 참여 연구를 포함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평가 연구는 부족하다. 이 연구는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처방자와 조제자의 경험을 통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제도의 집행 과정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목적표본추출을 통해 선정하였다.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 또는 조제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수도권 지역 의사와 약사로 선정하였다. 면담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IRB No. HYUIRB-202208-013) 완료 후 2022년 8월 27일부터 2022년 9월 15일까지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의사 3명, 약사 2명이고 연구자는 참여자와 대면하여 개별 심층 면담을 하였고 자료는 Giorgi(1970)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중략)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보고만으로는 현장에서 마약류 안전 사용 실현이 어렵다. 환자가 마약류 진통제를 복용 시 이를 인지하도록 복약 설명서 출력 프로그램의 개선과 처방자와 조제자의 마약류 진통제 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처방자와 조제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정책 관리자의 재고 확인을 위한 전산보고용으로만 이용하지 않고 마약류 진통제 오남용이 의심되는 환자 중재에 활용하도록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마약류 오남용 의심환자를 DUR 금기 항목에 제도적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포스터 제작 예시)

“제8회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 포스터 부문 수상작(대상)”

포스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arcotic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NIMS)에 의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 사용은 실현되고 있는가? : 마약 처방자와 조제자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Kim, Jinyi | Shin, Young-jeon* Hanyang University

INTRODUCTION

한국은 마약류 진통제 사용량이 2010년 대비 2013년에 4배 이상 증가하였다(최혜영 & 이의경, 2015). 90일 이상 마약류 진통제의 지속 사용량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9배 이상 늘었다(Oh, Jeon, & Choi, 2019). 2020년 마약사범은 2,198명으로 전년 대비 21.8% 늘었으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대검찰청, 2021). 마약류 오남용 자가 병·의원과 약국에서 합법으로 마약류 진통제를 구입 후 불법으로 투약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한국은 2018년 5월 18일부터 전국단위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arcotic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NIMS)을 운영하고 있다. NIMS는 마약류 취급자가 모든 마약류 취급 내역을 전산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 사례를 예방하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였다. 한국에서 마약류 연구는 마약류 진통제 사용 형태와 마약 중독자의 회복 경험에 관한 연구 등이 있으나 사용자 참여 연구를 포함하여 NIMS 평가 연구는 부족하다. 정책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정책 집행과정의 연구가 필요하다(Vedung E, 1995). 현상학적 질적 연구는 정책 사용자가 정책에 부여하는 의미를 분석하고 주관적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다루어 집행과정 평가 연구에 적합하다(권향원, 2016).

PURPOSE

이 연구는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의 처방자와 조제자의 경험을 통해 나타난 현상을 분석하여 제도집행과정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도출한다.

METHODS

연구 참여자는 목적표본추출을 통해 선정하였다.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 또는 조제하고 NIMS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수도권 지역 의사와 약사로 선정하였다. 응답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IRB No. HYUIRB-202208-013) 완료 후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2022년 8월 27일부터 2022년 9월 15일까지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의사 3명, 약사 2명이고 연구자는 참여자와 대면하여 반 구조화 질문지를 사용하여 개별 심층 면담을 하였다. 자료는 지오르기(Giorgi)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는 참여자들의 일상적인 경험의 본질 구조를 탐구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질적 분석 프로그램인 Maxqda를 사용하여 자료 관리와 해석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였다.

Table 1. 반 구조화 질문지

구분	질문 내용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처방과 조제 형태 경험과 인식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환자에 대한 경험,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오남용 사용자 중재 경험
NIMS 사용 경험	NIMS 사용 경험
NIMS 영향에 대한 인식	NIMS 목적에 대한 인지, 의견, 마약류 진통제 오남용 사용자 중재에 미치는 영향



Figure 1. 지오르기(Giorgi) 현상학적 분석 과정

RESULTS

Table 2. 연구 참여자 특성(심층 면담 진행 순서로 정리)

성별	직업	근무 형태	근무 지역	연령대	
1	여	약사	지역 약국	서울	40
2	여	약사	지역 약국	경기도	30
3	여	의사	종합 병원	서울	30
4	남	의사	의원	서울	40
5	남	의사	병원	서울	40

도출한 결과는 6개의 구성요소와 22개의 하위 구성요소였다(Table 2). 연구 참여자는 현장에서 마약 오남용을 감소를 위한 여러 업무를 진행하며 NIMS의 역할에 대해 의문이 있었다. 처방자와 조제자는 마약류 오남용자를 확인하고 중재할 때, NIMS 보다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처방자와 조제자가 '그들 바로 앞에, 현재, 마주하고 있는 한 명의 마약류 오남용자'에 대해서 NIMS를 활용하여 중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인 것을 보여주었다.

Table 2. 구성요소 분석

구성요소	하위 구성요소	주요 문장	
상황	처방자와 조제자가 마약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람을 마주하다	마약을 찾아서 멀리서 오는 환자들 "어쩌다 정말 모르는 곳에서 약을 찾아 찾아서 오는 분들이요" 마약류 진통제를 요구하는 사람들 "본인이 마약 중독인 것도 아는데, 나는 이 약 없으면 못산다고 난리 친 걸로 봐서는" 비급여 처방으로 "그 분도 항상 비급여였어요"	
	노력 한계	젊은 사람들, 특히 20대 "대부분 20대요", "20대요. 추가 처방해서 다른 목적으로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환자에게 복약지도 "마약은 약 설명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중재 시도 "환자분이 엄청 화를 냈어요. 내가 필요해서 타가는 건데 왜 줄었나고요" 처방 중단과 조제 거부 "아예 처방을 안해줍니다. 그런 애들 안받으려고요" 더 이상 중재하지 않기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좀 되게 마음으로는 안 타갑기는 한데 제가 해줄 수 있는게....." 중재하지 못한 가책 "내가 준 마약이.....,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좋진 않더라고요"	
	제도 사용	처방자와 조제자가 제도 관리자의 필요에 맞추어 진 NIMS를 사용하다	치료보다 행정 "치명적인 문제가 아니라면(마약 MIX한) 수액을 굳이 바꾸지 말자" 실제와 전산 일치 불가 "업무를 하다 보면 약이 일일이 입고된 순서로 나가는 불가능해요" 보고 의무에 대한 순응 "벌이니까 지켜야 되는 것은 알지만" 정책 피로와 업무과다 "귀찮아요" 편리하기도, 불편하기도 "수정은 제가 못해요. 청구프로그램 회사가 원격으로 해줘요"
		제도 의문	환자를 마주한 현장에서 NIMS의 역할은? 전산으로 재고관리하는 장점? "오남용 방지 목적....., 정확한 목적을 잘 모르겠어요", "약국에서는 잘 못 느끼겠어요", "저희처럼 진료 보는 의사들한테는 사실 그렇게까지 와 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남용에는 도움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냥 재고관리가 행정적으로 조금 편해진 정도요"
본업 업무		마약류 진통제의 안전 사용을 위해 현장에서 해결이 필요한 일들	주변에서 환자에게 '마약'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근처에서 마약류라고 말하는 약사는 약사에 없나 봐요. 영업사원이 한번 와서 여기 약국 중에 어디선가 이거를 마약성 진통제라고 계속 말씀을 해서 영업을 관란하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감기, 물살에 굳이..... 첫 진통제로 굳이..... "불필요한 처방이라고 생각해요" 처방 일수 제한에 맞춘 1회 용량의 병뚜기 "일수제한으로 1회 용량을 세로로 병뚜기 하는 거죠. 1정, 90일분 대신, 3정, 30일분" 마다 남은 약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처방 받지는 않았고, 주위에 통증이 심했던 사람이 있었어"
		해결	마주한 마약류 진통제 오남용자에 대한 중재는 DUR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서 다루는데 "DUR에서 (마약류 진통제 중복이) 계속 뜨는데 달라고 해서 안돼 안돼 하다가 오지 말라고 했어요" DUR은 중복만 때요 "마약류 진통제 DUR에서 연령 제한이나 금기 이런 거는 분석이 없는 것 같아요"

CONCLUSIONS: POLICY IMPLICATIONS

처방자와 조제자는 NIMS 제도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환자를 마주한 현장에서 NIMS의 역할, 목적, 결과에 대해서 의문을 나타냈다. 제도 사용자의 역할은 제도 결과에 영향을 끼치므로 처방자와 조제자가 NIMS 사용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정책 집행자가 DUR 점검 항목에 마약류 진통제 오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을 추가한다면, 정책 사용자가 처방과 조제 전에 제도를 통한 중재를 진행하여 안전한 약물 사용에 체계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처방자와 조제자가 NIMS에 보고한 결과가 DUR 항목으로 환류되고 업무에 활용된다면, NIMS 사용에 더 적극적일 수 있다.

제9회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 주제발표 신청서

- 웹툰·UCC 공모 접수 양식 -

◆ 접수 정보

대상 구분	약 사 <input type="checkbox"/>	약대생 <input type="checkbox"/>		
발표 형식	① 웹툰발표 () ② UCC발표 ()			
대표자 (제출자)	이름	소속		
	연락처	휴대전화		
	E-mail			
제출자	이름	소속	휴대전화	비고
내용	제목			
	파일명		상영시간	분 초
	저자 및 소속			

2023년 제9회 대한민국 학술제 주제발표 공모에 제출합니다.

【참고사항】

1. UCC 제작은 3~5분 이내 분량의 영상물로 준비해야 합니다(참가인원은 최대 5인까지로 한정함)
 2. 동영상(avi, wmv, mpeg), 640X320 이상
 3. 웹툰 출품작은 5컷 이상의 완결본 1부(해상도 : 3000PI 이상), 파일형식(JPG, JPEG, PNG 중 택일)으로 제출
 4. 공고문 내의 UCC 주제를 참고하여 영상 및 웹툰을 제작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우수 제출작은 학술제 당일(2023.10.15.) 상영 및 게시합니다.
 5. 제출작 접수는 담당자 e-mail (kpakjy@naver.com)로만 접수 받습니다.
 6. 제출작은 추후 대한약사회 홍보 영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 ※ 문의 : 정책학술팀 02-3415-7608

홍보자료 활용 동의서

수상작으로 선정 시, 상기한 웹툰 및 UCC 동영상은 홍보용(영상·게시)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에 동의합니다.

성명

(서명)

제9회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 준비위원장 귀중